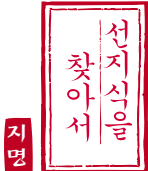


buddhanews.com

안면암 지도법사 지명 스님



소년은 뒷산에 올라가 멀리 햇빛에 빛나는 금강(錦江)을 보았다. 그렇게 본 금강은 기억 속에 한 조각 빛으로 남아있다. 산골의 작은 암자에서 살았던 소년의 하루 일과는 예불과 노동이었다. 예불을 올리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주지 노스님은 재반이 전문가로 자주 여기저기로 초청돼 출타했기 때문이다. 속세와 완전히 격리된 그 곳에, 바깥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들르는 객스님과 방학 때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뿐이었다. 객스님들과 고등학생들은 소년의 선생이 돼 한문을 익히게 했고, 초등학교 수준의 국어와 선행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어느 날 한 객스님이 소년에게 '큰 절에 가야 배울 것도 많고 진짜 중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 길로 소년은 금산사로 갔다. 그 당시에는 행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있었는데, 노동력이 우선시됐다. 소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뻔했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울며 매달려서 간신히 행자 입방을 허가받았다. 소년은 행자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금산사에 내려와서 며칠씩 묵어가는 혜정 스님이 참으로 좋았다. 혜정 스님의 고요하고 자비스러운 모습을 멀리서 여러 번 훑어보았다. 혜정 스님의 인품을 존경했기에 은사 스님으로 모시겠다고 여쭙었고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년은 행자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혜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그 소년이 바로 지명 스님이다.

지명 스님을 만나기 위해 안면도에 위치한 안면암으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다. 안면암으로 들어서자 다부진 근육질을 가진 금강역사와 제석천과 용, 건나라, 가루라 등 팔부신상이 먼저 반겼다. 금강역사와 팔부신상은 안면암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줄 것만 같다. 안면암 2층 법당에 서니 천수만이 내 집 안방처럼 훤히 내려다보인다. 원래 바다를 좋아하는 지명 스님은 이곳에 방생법회를 왔다가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풍광에 반해서 절터로 잡은 것이다.

안면암은 기와를 올리고 단청을 한 그 햇수가 십년이 조금 넘는 신생사찰로 무량수전과 비로전, 나한전 등 여러 채의 당우가 들어서 있다. 비로전과 나한전에서는 바다를 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 더욱 좋다. 안면암과 마주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여우섬과 조구널섬이라는 두 개의 작은 무인도가 있다. 안면암에서 조구널섬까지 오렌지색 부교(浮橋)가 놓여있고 그 너머에는 물에 뜨도록 만들어진 부탑(浮塔)이 있다. 부교와 부탑으로 인해 안면암은 안면도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지명 스님은 안면도에 아무 볼거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안면암 주위에 부탑과 부교를 설치해 놓았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드는 저녁 무렵, 물결이 흔들리는 부교를 건너다보면 잠시 이 사바세계를 잊게 된다.

지명 스님은 여름날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풍담을 조성하고 있었다. 동(銅)을 잘라서 직접 용접까지 하는 것이다. 세람 육십을 넣어놔는데 그런 노동이 어렵고 힘들지 않느냐고 여쭙었더니 "어렵기는 하지만



오직 세상의 주인인 너만 있을 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답했다. 그동안 지명 스님이 조성한 탑은 안면암의 부탑을 비롯해 과천 포교당에서 동탑과 첩탑 2점을 더 제작했다. 이 정도면 동탑 제작의 대가반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싶다.

지명 스님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했다. 또 허리 디스크와 간과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지만 분명한 생사관으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공기가 모든 공간에 꽉 차 있듯이, 병과 죽음 등 모든 재앙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질병, 죽음, 불의의 사고 등은 아주 공평무사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나만은 이 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떼를 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지은 모든 우위법(有爲法)도 끊임없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과정에 있다. 생겨나서 조금 머무는 것 같지만 바로 달라고 소멸된다. 뜻밖의 재앙이나 질병, 죽음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긴 하지만 그것은 안 될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질서가 부여한 본래의 자기 자리에 당당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다.

스님은 선사상 특징 중 하나인 무일물(無一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무일물은 '마음밖에 본래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한 물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법이 나 공사상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물의 영원한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무일물에는 이미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무상(無常)과 고정적이고 실제적인 나 없다는 무아(無我)가 전제돼 있어요. 사람이란 것도 사 람들이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답은 제쳐둬야 할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출세라는 자리를 위해서 돈, 명예, 권력에 매달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무(無)사상은 이러한 우리에게 '타인은 없다. 오직 너만 있고 네가 바로 세상의 주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 어디에서든지 주인공으로 살라'고 했다. 지명 스님은 주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했다.

"모자처럼 이름만 덮어 씌워진 주인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조종하는 실제 주인도 있고, 현장에서 자기 소임을 다해 전체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주인도 있어요. 세상을 잔치집으로 친다면 세상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 나름대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친다"는 말은 '나 외에 따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의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는 뜻이라다.

은사 혜정 스님은 사미계를 받기 전에 상원사의 구전 선사 이야기를 해주셨다. 가마솥을 걸기 위해 아

홉 번이나 허물고 다시 걸기를 반복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구정(九鼎) 선사. 은사스님은 "구정 선사처럼 수행자로서 아홉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고쳐 걸 수 있는 마음으로 불도를 닦아라"고 일렀다. 이 말씀은 평생을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큰 지침이 됐다.

사미계를 받은 지명 스님은 범어사 강원에서 강교봉 스님, 훈해 스님, 변각성 스님으로부터 내전을 배웠다. 불경에 나오는 많은 보살·천왕·용·아차·귀신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으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천신이 나타나는 그런 상징들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들이 불경의 등장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불경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그러다 강교봉 스님으로부터 <능엄경> 공부를 하게 됐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은 행위를 상징하고,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고,地藏보살은 원력을 상징한다"는 이 말씀에 재발심하게 됐다. 요즈음은 이런 말씀이 특별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가슴에 와 닿더라. 여러 강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명 스님은 불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서울로 올라와서 동국대 불교대학에 적을 두었다. 스님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영어에 대한 갈증은 가시지 않았다. 영어에 대한 욕심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미국 LA의 한 포교당에 스님이 필요하다고 했다. 영어와 기독교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내·외전 두루 공부... 국경 없는 포교로 세상에 회향 안면암 명물 부탑과 부교, 안면도 관광 명소로 만들어

부귀, 권력, 명예, 성공, 행복 등의 개념과 단어도 사람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하루살이의 태어남과 죽음처럼 그 과정을 한 번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무상이라든가 무아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처럼 변화의 주기가 길 경우에는 무상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우리의 번뇌와 고통은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스님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뛰 어다니고 있는지'를 물었다.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3호 붓다의메아리

5호 연행어머무는곳

6호 천진미소

7호 가람의향기

41호 선의세계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 [공장직영] ※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 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 침향 / 주목 / 염주 / 염주주머니 / 양초 / 향
- 사경책 / 사경지 / 한지108사경 / 우리말사경
- 4 8용품 / 등표 / 전선 / 전구 / 청사초롱
- 공단등 / 바림등 / 만월등 / 봉축 · 생일카드
- 예수계용품 / 영가웃 / 탑다라니 / 다포

검색창에 [붓다쇼핑] www.buddhashopping.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불교 최고의 신문!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는 최고 를 지향합니다

불교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보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연한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한국불교신문, BBS 청주불교방송, HCN 충북방송, 충청권 일간신문(충북일보, 충청매일, 충청타임즈,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청타임즈, 대전일보)에 실시간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충청지사
대전,충남,충북

- + 사찰의 법회, 행사 취재 보도
- + 사찰의 홍보 및 광고
- + 신문사(통신사)에 기사작성 제공 (연한뉴스, 뉴시스, 충청뉴스)

제보, 구독, 광고문의

- 충북지사 : 043-732-5560
- 대전지사 : 042-223-8214
- 지사장 : 010-9522-8453 (혜철스님) / E-mail : ksson108@hanmail.net
- 기자 : 010-5078-9748 (이한배 기자)

현대불교신문 1인 1부 구독하기 운동에 동참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는 충청지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일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지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통장번호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